2026 Autumn

대입정보매거진 vol.138



고1칼럼
수행평가 준비 및 관리 방법,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고2칼럼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통해 본 고2 학생의 준비 전략 5

고3칼럼
2027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략 9

대입뉴스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14

대입코칭
2026 대입 결과 분석 및 그에 따른 준비 전략 16

대입똑똑
수능 D-50, 컨디션과 생활습관 어떻게 관리할까? 21

합격수기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학생부종합전형 23

합격수기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일반(학생부종합)전형 이공계열(무학과) 29

※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기획 및 제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고1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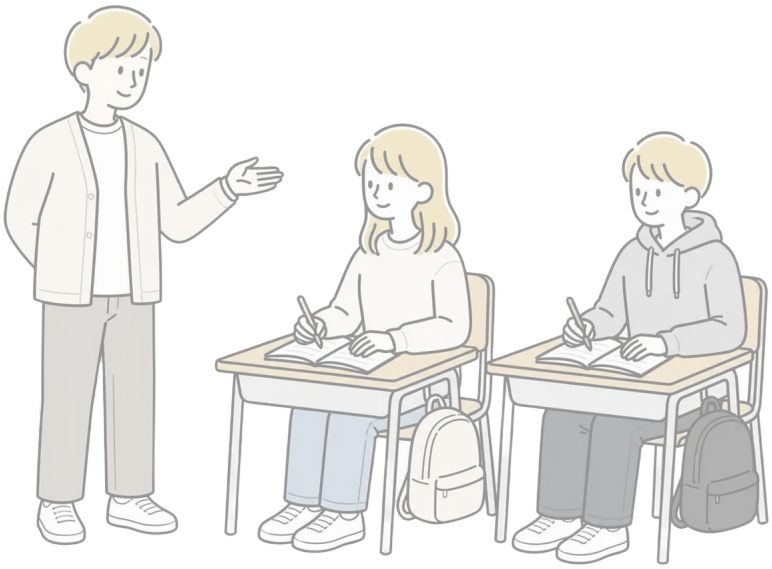
수행평가 준비 및 관리 방법,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모고등학교 교사 정성은

2022 개정교육과정, 수행평가를 대하는 자세 —
결국은 '수업'과 '선생님'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수행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면서 수행평가의 비중과 성격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요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석적인 방법으로 '수업에 충실하고, 담당교과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는 것' 입니다. 다소 고지식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재 교육 현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보다 정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수행평가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평가 톺아보기에서는 수행평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교과담당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교과 수업 시간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정에서 과제형으로 해오던 사례는 교육부에서 금지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평가제가 강화되었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록의 근거 역시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수행평가는 더 이상 ‘보조적인 점수’가 아니라 한 학기 수업의 실질적인 뼈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최근 일부 학생과 학부모님은 사교육 시장에 ‘수행평가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또한, AI 발전으로 AI에게 수행평가 내용 잘하는 방법 혹은 질문하여 나온 답변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는 애초에 교과담당 교사가 자신의 수업 방향과 목표, 성취기준에 맞추어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8 대입에서는 수행평가 이름이 대입 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은 수행평가 이름 작성 부터 세특 기재 방식까지 고민하며 평가 설계에 신경을 씁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만들어진 일반화된 요령이 특정 학교, 특정 교사의 평가 기준과 정확히 들어맞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교실 안에서 답을 찾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의 첫걸음, 모르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원칙은 단순합니다. 수행평가에 대해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담당 교과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아야 합니다. 채점기준표가 공지되었다면 그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으면 수업 후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질문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깊이로 다뤄야 하는지”, “분량이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일수록 선생님도 더 명확하게 답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짐작하거나, 친구들과 의논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의 방향을 설정해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체계적인 관리
의도 파악, 철저한 준비, 출처의 정확성, 그리고 정직함

수행평가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행평가를 설계한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시험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수행평가도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완벽하게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가요소 및 채점기준에 벗어난 답안은 감점에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수행평가의 목적과 성취기준, 채점기준, 채점 점수표를 살펴보고 이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어떤 의도로 설계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교과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수행평가 준비는 학기 초부터 해야 합니다. 평가는 학기 시작과 함께 계획됩니다.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수행평가에 대한 대강의 틀을 안내해 줍니다. 그때 각 교과마다 어떠한 수행평가로 진행되는 지 정리해 놓고 구체적인 평가계획이 나왔을 때 채점기준표를 확인하여 수행평가를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평가 일정, 평가 방법, 준비해야할 자료 등을 달력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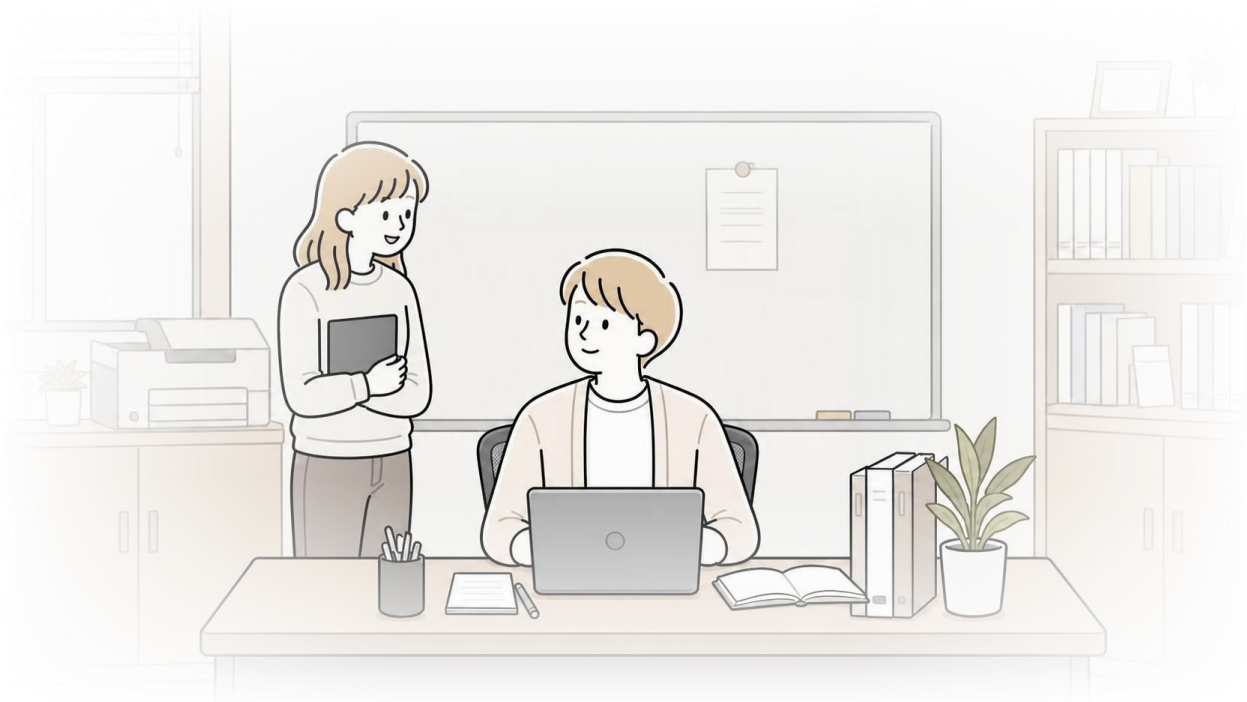
셋째, 수행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준비 해야합니다. 보고서 쓰기 활동이나 토론 수업, 발표 등을 할 때는 참고문헌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참고자료, 참고문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고서 작성 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참고문헌, 참고자료인데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힙니다. 대개 포털 사이트, 블로그, 나무위키 등을 그대로 출처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문헌, 참고자료는 신빙성, 정확성을 고려하여 준비해야합니다.

넷째, 수행평가에 있어서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AI의 발달로 학생들은 AI에게 수행평가를 질문한 뒤, AI가 작성해준 답, 자료를 그대로 수행평가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학생의 평가물에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AI가 만들어준 자료를 학생들이 검증하고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학생 본인의 능력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뢰를 잃은 결과물은 추후 학생의 성장이나 평가에 안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준비의 첫걸음, 모르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자녀의 수행평가가 걱정되는 학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지원은 학원이나 컨설팅을 서둘러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담당 선생님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와의 상담을 주저하지 마시고, 자녀가 평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행평가는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고려하여 주로 시행하는 특정 기간이 있기에 그 동안 학생들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수행평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잘 준비하는지 자료는 잘 챙기고 있는지를 살펴 주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생 본인이 같은 방향을 향해 서로 소통할 때 수행평가는 부담스러운 관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과정에 충실한 배움'입니다. 지름길을 찾기보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궁금한 것은 선생님께 묻고, 정직하게 자신의 결과물을 쌓아 가는 것.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 원칙이야말로 변화하는 평가 제도 속에서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2칼럼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통해 본 고2 학생의 준비 전략

설월여자고등학교 교사 서점권

대입 제도가 바뀔 때마다 현장에는 새로운 공식이 빠르게 퍼집니다. 수시가 80.8%이니 정시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내신 5등급제에서는 1.00이 아니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식의 말입니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급한 단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8 대학입시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이 대학의 실제 선발 체계 안에서 처음 만나는 해입니다. 숫자를 합격선으로 곧바로 바꾸기보다 대학이 무엇을 평가하고 어디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 하는지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시 80.8%, 전국 평균보다 지원 대학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2028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8,789명입니다. 수시모집은 28만 1,895명으로 80.8%, 정시모집은 6만 6,894명으로 19.2%입니다. 전년보다 수시는 4,312명 늘고 정시는 1,240명 줄었습니다.

구분	2028 모집인원	비율	전년 대비
수시모집	281,895명	80.8%	+4,312명
정시모집	66,894명	19.2%	-1,240명
전체	348,789명	100.0%	+3,07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2026. 4. 29. 기준

80.8%는 전국 평균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수시 비율은 약 66.7%인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약 89.8%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학생부종합과 논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수시 선발의 중심을 이룹니다.

전형별 규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15만 7,991명, 학생부 종합은 8만 4,704명으로 두 전형을 합하면 전체 모집인원의 69.6%입니다. 수시 안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약 56.0%, 학생부 종합이 약 30.0%를 차지합니다. 학생부가 대입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같은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도 대학과 권역에 따라 선발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체 기준	수시 내 비중
학생부 교과	157,991명	45.3%	약 56.0%
학생부 종합	84,704명	24.3%	약 30.0%
논술	12,727명	3.6%	약 4.5%
정시 수능 위주	61,779명	17.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2026. 4. 29. 기준

지역인재 특별전형 2만 7,446명과 지역 의사 선발 특별전형 610명도 지역 학생에게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만 지역 전형이라는 명칭만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재학 요건, 모집 단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 지원 기회가 됩니다. 결국 수시 80.8% 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희망 대학과 모집 단위의 실제 모집인원과 전형 방법입니다.

내신 5등급제, 등급보다 과목 선택과 학습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신 5등급제의 상대평가 비율은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입니다. 누적 비율로 보면 1등급까지 10%, 2등급까지 34%, 3등급까지 66%가 포함됩니다. 같은 등급에 속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평균 등급 한 줄만으로 학생을 구분하기는 이전보다 어려워집니다. 이 변화는 내신의 중요성이 낮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학은 원점 수,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성취도 분포, 이수한 과목의 수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함께 살피며 등급의 맥락을 읽으려 할 것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에도 서류 평가나 교과 정성평가를 결합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평균 등급이라도 모집 단위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과 성적 관리만을 위해 관련 과목을 피한 학생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신 1.00 필수론 이나 5등급제를 9등급제로 단순히 환산한 지원 가능선도 경계해야 합니다. 5등급제 학생의 실제 대학별 합격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특정 등급을 과거 체계의 한 점수로 바꾸거나 1.16이면 어느 대학, 2.00이면 어느 대학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대학별 교과 반영 방식과 수능 최저, 학교별 과목 편성, 정성평가를 생략한 추정입니다. 일부 지역 조사에서 전 과목 1.00 학생이 적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1.00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줄 뿐 대학별 합격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표준편차와 이수자 수도 합격 공식이 아니라 성취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불확실한 환산표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서 성취와 탐구의 깊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통합형 수능, 과목 선택보다 대학별 반영이 변수가 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응시합니다. 기존 수능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하거나 선택 과학탐구의 가산점을 계산하던 전략은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줄어들지만 대학별 반영 방식의 차이는 남습니다.

대학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반영하는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지, 모집 단위별 가중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환산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모든 대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저를 폐지하거나 완화한 대학과 새로 도입하거나 유지한 대학이 함께 나타납니다. 영역별 등급 합뿐 아니라 국어와 수학의 필수 포함 여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산정 방식, 영어와 한국사의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논술 위주 전형은 1만 2,727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대전대와 한성대, 한양대 에리카가 새로 포함되고 부산대가 실시하지 않는 등 대학별 변화는 분명합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도 정시모집의 약 92.4%를 차지하지만 모든 대학이 수능 100%로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한양대 등은 정시에서도 교과나 서류, 출결을 반영합니다. 정시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학교 수업과 과목 선택을 포기하면 지원 가능한 대학의 폭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시가 커질수록 학교생활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학생의 학교생활로 옮기면 준비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끝까지 성취해야 합니다. 대학은 특정 과목명을 한 번 이수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학교의 개설 여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선택한 과목의 기본 개념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했으며, 학습을 어떻게 확장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둘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수업에서 시작된 탐구 과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화려한 전공 용어나 활동의 개수보다 수업 중에 생긴 질문을 자료 조사와 비교, 분석, 실험, 토론, 보고서로 확장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행평가와 보고서를 입시용 결과물로 따로 만들기보다 교과 개념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며 이해를 깊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출결과 수업 참여를 통해 성실성을 보여주면서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내신 학습은 교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고 수능 학습은 그 개념을 낯선 자료와 문항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계열과 관계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준비하고, 모의평가 이후에는 단순 등급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방식으로 자신의 유불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변화가 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시의 본질은 내신 1.00을 만들거나 과거 입시 결과를 5등급제로 환산해 새로운 합격선을 서둘러 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시 80.8% 뒤에 있는 권역별 차이, 학생부교과전형의 정성평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대학별 반영 방식, 정시의 학생부 반영 여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대학이 찾는 학생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배운 내용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와 자신의 이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희망하는 진로와 모집 단위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선택한 과목에서는 끝까지 의미 있는 성취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을 고르기보다 자신의 관심과 진로를 설명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중에 생긴 작은 질문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자료 조사와 분석, 토론, 실험, 보고서로 확장해 보는 과정에서 학업 역량과 탐구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활동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채우기 위한 별도의 입시 준비가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학습 과정이어야 합니다.

출결과 수업 참여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생활에서 보여주는 성실성은 모든 전형의 기본이며, 내신과 수능 역시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내신 공부를 통해 교과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능 공부를 통해 이를 낯선 자료와 문제에 적용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2028 대입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자극적인 입시 공식이나 불확실한 환산표에 있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필요한 과목을 제대로 선택하고,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배움을 탐구와 성취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가 클수록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성실하게 쌓아 온 하루하루가 가장 강한 대입 준비가 될 것입니다.



고3칼럼

2027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략

용인홍천고등학교 교사 오원경

수시모집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지금 용인홍천고 고3 교무실에도 이야기를 나누는 학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로 가득입니다.

왜 수시 모집 때문에 고민이 많을까요. 원서를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서를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서의 개수가 한정적이다.
둘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의 조합이 수백 가지이다.
셋째, 자신의 성적만으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의 지원자풀과 입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원서는 여섯 장, 성적 조합은 수백 가지, 평가는 수시 이후에

수시 원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섯 장입니다. 만약 수백장의 원서를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시 원서 여섯 장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3 대입 전에는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있었지요. 원하는 대로 쓰다보니 무분별한 원서 접수가 이뤄졌고 결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경쟁률이 폭등하고 수험생은 원서비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터 수시 원서 6장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원서가 6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 원서를 잘 고민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수시 원서만 고려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수능 이후에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치러지는 정시 원서도 있기 때문이죠. 즉, 수시 원서 6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내신, 서류, 예측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원서 3장까지 고려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적을 조합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전형과 학교와 학과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시 원서 접수와 지원 전략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7 대입 수시 모집의 주요 특징

2027 대입 수시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미세하게 증가했습니다. 1,735명이 늘었네요.
반면 정시 모집인원은 1,197명이 감소했습니다.

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7학년도	277,583(80.3%)	68,134(19.7%)	345,717
2026학년도	275,848(79.9%)	69,331(20.1%)	345,179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지역별로 어떤 전형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전형별로 나누어 본 결과입니다.

전형	수시모집				정시모집
지역	종합	교과	논술	실기 및 기타	수능
수도권	39,062 (29.0%)	28,219 (20.9%)	11,030 (8.2%)	10,445 (7.8%)	46,031 (34.2%)
비수도권	42,869 (20.3%)	128,184 (60.8%)	1,681 (0.8%)	16,093 (7.7%)	22,103 (10.5%)

위 표를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능과 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교과전형이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지역별로 선호하는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도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전형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전형 준비에 당연히 내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겠지요. 그렇다면 학생부종합을 준비한다는 것은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한다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과연 어느 정도 비율로 적어야 할까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비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삼아야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지요.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교과전형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수시에 합격할 경우 정시 모집에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선을 그을 때, 수능 성적으로 선을 긋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듯이 수능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이라는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봅니다. 그럼 예측을 위해서 참고로 삼아야 하는 평가가 있겠지요. 바로 6월과 9월 모의평가입니다.

6월,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이유

평가 시기	국어 상관계수	수학 상관계수	탐구 백분위 상관계수	평균 백분위 상관계수
3월 – 수능	0.787	0.885	0.692	0.856
5월 – 수능	0.814	0.893	0.754	0.854
6월 – 수능	0.821	0.914	0.767	0.876
7월 – 수능	0.795	0.890	0.822	0.852
9월 – 수능	0.830	0.905	0.872	0.909

이 표는 제가 본교 학생들을 바탕으로 몇 년 동안의 성적을 통계내 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크지요. 6월과 9월은 N수생이 들어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의 수능 실력을 꽤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6월과 9월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선을 만든다면 자신의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의 범위를 꽤 넓게(절대 좁게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째, 6월과 9월 성적을 바탕으로,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전국연합 성적도 참고해서 자신의 수능 성적을 예측해 봅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보수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셋째, 그렇다면 학생부교과 전형은 이 예측과 비슷하게 또는 위에서 시작합니다. 즉, 수능으로 갈 수 없는 대학들을 교과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죠.

학생부교과전형을 지원할 때

그렇다면 학생부교과전형을 지원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래는 주요 대학의 교과전형 현황입니다.

대학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건국대	KU지역균형	346	교과70+정성30	미적용
경희대	지역균형	578	정량70+정성30	2합5(탐2)
고려대	학교추천	648	교과90+서류10	3합7(탐1)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	410	교과70+서류30	미적용
서강대	지역균형	178	교과100	3개영역 각3등급(탐1)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	241	교과80+정성20	3합8(탐1)
성균관대	추천인재	429	정량80+정성20	3합6/7(탐2)
숙명여대	지역균형선발	287	교과70+서류30	미적용
연세대	추천형	500	교과100	2합4/5(탐각각)+영3
이화여대	고교추천	377	교과100	2합5(1)
중앙대	지역균형	404	교과90+출결10	3합7(탐1)
한국외대	학생부교과(추천)	200	교과100	2합4(탐1)
한양대	학생부교과(추천형)	336	교과90+정성10	3합7(탐1)
홍익대	학교장추천자	307	교과100	2합5(탐1)

보면 아시겠지만 우선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핵심입니다. 실질 지원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정성평가 병행 대학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량 100%가 아닌 대학은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50%, 70% 등급컷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학교마다 다양한 평가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영 교과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들은 모든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경기도 강남대학교의 교과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교과 반영방법
학생부교과 100%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한국사 교과 중 상위 20과목

이 표를 보시면 강남대학교는 교과를 20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 교과를 반영할 때와는 다른 내신이 산출되겠지요?
반영 과목 수에 따라 실제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전형을 쓰게 된다면 몇 장을 써야 할까요. 교과전형은 학교마다 다양한 산출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신이라는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때문에 교과전형을 쓴다면 반드시 합격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능에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이라면 교과전형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다만, 1장을 쓸 경우에는 당해의 경쟁률이나 지원자 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2장 이상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과전형을 쓰면 그 이후에 무엇을 쓸까요. 내신만으로 갈 수 없지만,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 즉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물론 면접이 들어갈 수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동일 학과 기준 교과와 종합의 내신 격차가 상당합니다. 즉, 교과전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종합전형은 그 위로 배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종합전형은 대학마다 학생을 보는 시각이 상이합니다. 지원 전 해당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확인해 보아야겠지요. 보통 학업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학교에 따라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항상 내신을 확인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하려는 학교의 평가요소를 확인하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수험생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측되는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높을 수도 있지요. 이럴 경우 학생들의 고려 사항에는 논술전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논술전형을 지원할 때

논술전형은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전형입니다. 인문 논술은 국어, 사회, 영어 지문이 주로 출제되고,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문제가 나옵니다. 인문계열만 한번 살펴볼까요.

대학	출제 범위(교과군)	26대입 문항 수 및 분량	고사 시간	참고 – 27대입 수능 최저
고려대	국어, 사회	◦2문항 -문항당 700자(±50자)	80분	4합 8(탐1)
연세대	국어, 영어, 사회	◦4문항 -1~3번 문항 600자 안팎 -4번 문항 글자 수 제한 없음	120분	없음
서강대	국어, 사회	◦1문항(사실상 2문항) -800~100자	100분	3합 7(탐1)
성균관대	국어, 사회	◦3문항 -분량 제한 없음	100분	3합 5~6(탐2)
한양대	국어, 사회	◦1문항(사실상 2문항) -1,200자	90분	3합 7(탐1)
이화여대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영어, 사회)	◦3문항(사실상 4문항) -글자 수 제시 없음	100분	국어 포함 2합 5(탐1) 스크랜튿 : 3합 5(탐1)
중앙대	국어, 사회	◦3문항 - 1~2번 문항 550~570자 - 3번 문항 330~350자	120분	3합 6(탐1)
경희대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사회)	◦2문항 -1번 –801~900자 -2번-1,001~1,100자	120분	2합 5(탐2)
한국외대	고등학교 교육과정	◦3문항 -1번 400자 내외 -2번 450자 내외 -3번 500자 내외	90분	2합 4(탐1)
건국대	국어, 사회	◦2문항 -1번 401~600자 -2번 801~1,000자	100분	2합 5(탐1)

생각보다 문항 수도 많고 써야 할 분량도 많습니다. 모집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는 첫째, 최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둘째,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응시 가능한 날짜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적은 크게 낮은데 한 방을 노리며 지나치게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지원할 경우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성적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2027수시모집을 앞두고 마지막 조언

항상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시 원서는 첫날에 거의 쓰지 않는데, 수시 원서는 첫날에 써 버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이 말은 정시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경쟁률을 살피는 과정을 거치지만, 수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써야할 대학과 학과들이 보입니다. 모든 살펴봄의 과정에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앞뒤를 잘 살필 수 있는 적절한 행운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대입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08-28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고등교육법」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교협은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학, 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하 기본사항)에 반영했다.

① 소규모학교 등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에 따라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25~)된 이후,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일부 과목을 온라인학교 또는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수강하고 있다.

학생들이 과목 이수 방식에 따라 대학입시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안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전형 운영 시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과목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였다.

② 원서접수기간 내 전산오류 발생 시 구제방안 신설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 시 필요한 서류의 발급.제공이 전산오류 등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이 자체 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서류의 사후제출 등 구제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에 반영하였다.

③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 개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관련법률과 기본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의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지원자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합격생이 합격 후 고등학교 졸업일 전에 거주지를 변경하여 입학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학교-학생 간 분쟁으로 인한 비용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구제 및 대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하여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주요건을 개정하였다.

※ 기본사항에 명시된 졸업일에 대한 기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일자)을 준수하고, 대학은 모집요강에 해당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지원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운영

*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하며, 기 졸업자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거주요건(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충족해야 함

④ 합격자의 등록 및 등록포기 절차 안내 내실화

기본사항에서 모집시기별 합격자의 등록, 이중등록 금지 및 등록 포기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합격생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의도하지 않은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이중등록, 미충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9학년도 기본사항에는 대학이 합격자의 등록 및 등록포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보호, 대학의 미충원 및 이중등록 문제 최소화 등 전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지원자의 대입 예측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대입지원 전략을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지원하는 기본사항 수립 취지에 따라,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수시모집 일정은 수능성적통지일(2028. 12. 8.(금) 예정) 이후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확보하여 전형기간을 '총 88일간'으로 설정하였다.

수시모집	기 간
원서접수	2028. 09. 18.(월) ~ 21.(목)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은 아래 일정에 원서접수를 실시할 수 있음 - 2028. 07. 03.(월) ~ 07.(금) 또는 09. 18.(월) ~ 21.(목)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8. 09. 22.(금) ~ 12. 18.(월) (88일)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의 원서접수를 7월에 실시할 경우 전형기간은 '2028. 07. 08.(토)'부터 시작
합격자 발표	2028. 12. 19.(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8. 12. 20.(수) ~ 22.(금) (3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2028. 12. 23.(토) ~ 28.(목) (마감일 18시까지) (6일간) ※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미등록 충원 등록	2028. 12. 29.(금) 18시까지

정시모집 일정은 대학별고사(실기, 면접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시모집 군별(가/나/다)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으로 각 '8일간'으로 설정하였다.

정시모집		기 간
원서접수		2029. 01. 02.(화) ~ 05.(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9. 01. 08.(월) ~ 15.(월) (8일)
	나군	2029. 01. 16.(화) ~ 23.(화) (8일)
	다군	2029. 01. 24.(수) ~ 31.(수) (8일)
합격자 발표		2029. 02. 06.(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9. 02. 07.(수) ~ 09.(금) (3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2029. 02. 14.(수) ~ 19.(월) (마감일 18시까지) (6일간) ※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미등록 충원 등록		2029. 02. 20.(화) 18시까지

추가모집 일정은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으로 '8일간'으로 설정하였다.

추가모집	기 간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	2029. 02. 21.(수) ~ 28.(수) (8일간) ※ 합격통보: 2029. 02. 28.(수) 18시까지 ※ 마감일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등록마감	2029. 02. 28.(수) 20시까지

2026 대입 결과 분석 및 그에 따른 준비 전략

서울세종고등학교 교사 최희원

I. 2026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분석

2026 대입의 수시 모집인원은 275,848명으로 2025 대입에 비해 4,367명이 증가했었다. 반면에 정시 모집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122명이 감소한 69,331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은 4,245명 증가했었다.

- 시기별 모집인원의 변화 -

학년도	인원(명)						비율(%)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전년 대비 증감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수시	정시	합계			
2026 대입	275,848	69,331	345,179	4,367	-122	4,245	79.9	20.1	100
2025 대입	271,481	69,453	340,934	-551	-2,811	-3,362	79.6	20.4	100
2024 대입	272,032	72,264	344,296	-410	-4,418	-4,828	79.0	21.0	100

2026 대입에서는 특히 수시 모집인원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수시 모집인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2026 대입 수시 모집비율은 79.9%를 기록하였다. 먼저 수시모집과 관련하여 권역별로 전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역시 학생부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많았다. 수도권에서도 교과와 종합을 합친 인원이 66,548명으로 수도권 전체 수시모집의 76.1%를 차지하였다. 비수도권에서는 무려 90.4%를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선발하였다. 총 12,559명을 모집하는 논술전형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모집 비율(87.09%)이 비수도권의 모집 비율(12.9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도권 수시모집 중 논술전형의 모집비율은 12.5%에 불과하지만, 전체 논술전형 모집인원의 87.09%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도권에서 모집하였다.

- 2026 대입 수시 권역별/전형별 모집인원 및 비율 -

모집 시기	권역	전형유형	2026 대입		2025 대입		증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수시	수도권	학생부위주(교과)	27,878	31.9	28,754	32.6	-876
		학생부위주(종합)	38,670	44.2	38,557	43.8	113
		논술위주	10,938	12.5	10,524	11.9	414
		실기/실적위주	7,870	9.0	8,085	9.2	-215
		기타	2,097	2.4	2,209	2.5	-112
	수도권 소계		87,453	100	88,129	100	-676
	비수도권	학생부위주(교과)	127,617	67.7	128,006	68.2	-391
		학생부위주(종합)	42,703	22.7	41,785	22.3	918
		논술위주	1,621	0.9	1,686	0.9	-65
		실기/실적위주	13,995	7.4	13,761	7.3	234
		기타	2,459	1.3	2,467	1.3	8
	비수도권 소계		188,395	100	187,705	100	690
	수시 소계		275,848		275,834		79.9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90% 이상이다. 2026 대입에서도 수능 위주 전형에서 정시모집의 92.2%인 63,902명을 모집하였다.
전형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수능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 기타 전형의 모집인원은 소폭 증가하고, 수시모집에서도 모집인원이 감소한 실기/실적 위주 전형만 498명 감소하였다.

- 2026 대입 정시 전형별 모집인원 및 비율 -

전형유형	모집인원		증감
	2026	2025	
수능위주	63,902명(92.2%)	63,827명(91.9%)	75
실기/실적위주	4,726명(6.8%)	5,224명(7.5%)	-498
학생부위주(교과)	317명(0.5%)	174명(0.3%)	143
학생부위주(종합)	219명(0.3%)	183명(0.3%)	36
기타	167명(0.2%)	45명(0.1%)	122
합계	69,331명	69,453명	-122

II. 2026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

1. 2026 대입 주요 동향 및 특징

2026 대입은 재학생 인원 증가와 의대 모집 인원 원상복구, 학폭 의무 반영, 탐구 과목 변화, 수능 난이도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행동 양상과 전형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6 대입의 주요 동향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3 수험생(재학생) 수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
2. 의대 정원 변동 및 불확실성에 따른 최상위권의 지원 전략과 합격선 연쇄 이동
3. 자연계열 지원자의 사회탐구 응시 허용 확대로 인한 '사탐/확통 쏠림' 현상 가속화
4.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수능 위주) 등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의무화
5. 수능 영어 변별력 확보 기조(난이도 상승)에 따른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복 부담 가중
6. 무전공(자유전공) 선발 대폭 확대에 따른 학과별 합격선 변동 및 지원 패러다임 변화

2. 학생들의 과목 및 지원 양상 변화

학생들은 공부량 및 난이도 차이의 영향으로 과탐에서 사탐으로, 미적분에서 확률과 통계로, 언어와 매체에서 화법과 작문으로 선택과목을 옮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성적뿐 아니라 학습 부담과 난이도에 따른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 2026 대입 수능 국어영역 선택과목별 접수 인원 및 응시인원 비율 -

인원	2026		2025		2024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접수 인원 (비율)	375,359 (68.4%)	173,017 (33.6%)	331,616 (64.0%)	186,885 (36.0%)	306,418 (61.1%)	194,903 (38.9%)
응시인원 (비율)	333,275 (67.9%)	157,714 (32.1%)	290,372 (63.0%)	170,880 (37.0%)	264,880 (59.8%)	178,210 (40.2%)

- 2026 대입 수능 수학영역 선택과목별 접수 인원 및 응시인원 비율 -

인원	2026			2025			2024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접수 인원 (비율)	297,726 (57.1%)	207,791 (39.9%)	15,677 (3.0%)	233,111 (47.3%)	244,408 (49.5%)	15,760 (3.2%)	223,550 (46.7%)	235,100 (49.2%)	19,433 (4.1%)
응시 인원 (비율)	264,335 (56.1%)	193,395 (41.0%)	13,624 (2.9%)	202,266 (45.6%)	227,232 (51.3%)	13,735 (3.1%)	192,230 (45.0%)	217,380 (51.0%)	17,01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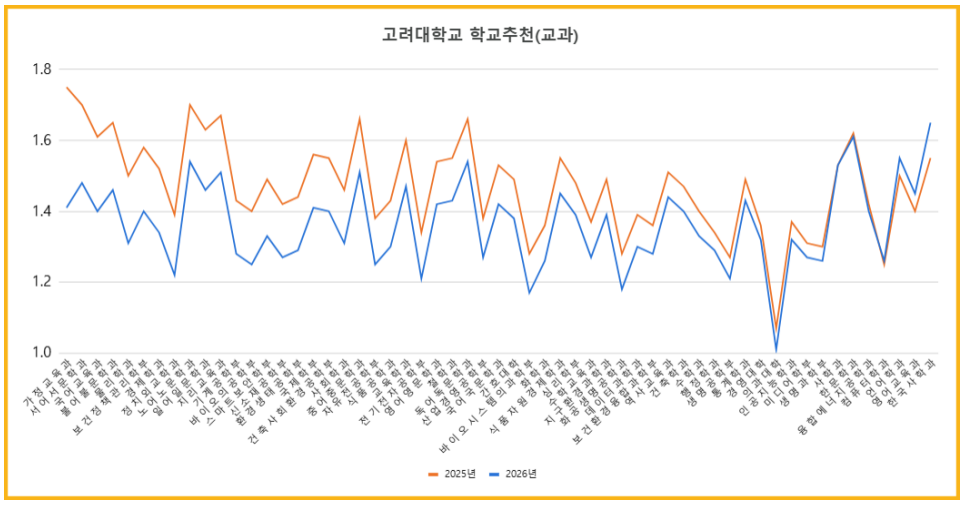
2026 대입 수능에서 사회탐구 응시인원은 284,535명(60.0%)으로 작년 225,135명(50.3%)에 비해 59,400명(9.7%)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탐구 한 과목과 과학탐구 응시인원은 81,023명(17.1%)으로 작년 47,723명(10.7%)에 비해 34,300명(6.4%) 증가하였다. 이는 많은 대학에서 자연계열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하면서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과학탐구에 비해 학업 부담이 비교적 적은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회탐구를 선택했을 때 과학탐구를 선택할 때보다 공부의 양이 줄어들면서 본인의 부족한 국어와 수학, 영어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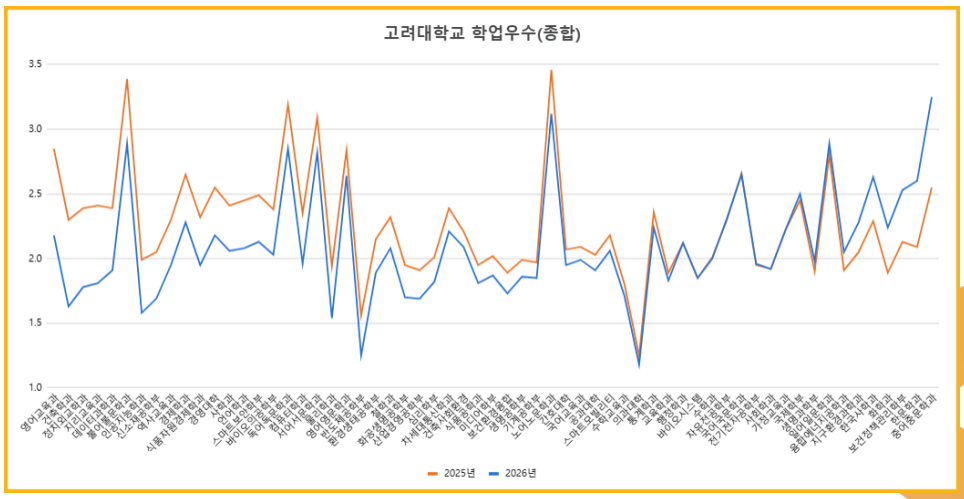
3. 수시 전형별 경쟁률 동향 및 입결의 변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원자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경쟁률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재학생 수 증가가 수시 지원자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쳐, 대학별·학과별 경쟁 구도가 예년보다 한층 치열했다. 다만 재학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상위권 대학들의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경쟁률은 오히려 대체로 하락했고, 논술전형 경쟁률은 상승했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 및 종합전형 활용에 부담을 느끼고, 논술로 역전을 노리는 경향이 강해진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위권 대학들의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경쟁률은 하락했지만 입시결과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 점, 충원율이 감소했고 어려운 수능에도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이 높아진 점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모습이다.

전형구분	2026 경쟁률	변화 원인 및 해석
교과전형	대체로 하락	재학생 수 증가에 따른 지원 위축
종합전형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유무에 따른 선호 차별화
논술전형	상승	역전 노림, 불안 심리 증대 및 전략적 선택

- 2025~2026 고려대 교과(학교추천)과 종합(학업우수) 입결 비교 -





4. 의대 정원 감소와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단위 증가의 영향

2026 대입 수시 결과 의대 경쟁률은 대체적으로 상승하였다. 모집 인원이 감소한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일부 대학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상승하였고, 논술전형은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상승하였다. 또한 합격선 역시 모집인원 감소의 영향을 받아 학생부교과전형은 2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은 5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상승하였다.

2026 대입에서도 전공자율선택제 확대가 미친 영향력은 매우 컸다. 타 학과에 비해 선발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과 전공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으로 인해 모집인원이 많은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로 지원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었고 이로 인해 전공자율선택제의 입시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전공자율선택 모집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모집인원이 크게 줄어든 일반학과의 경우, 전년도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져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5. 수능 난이도 및 과목별 특징과 정시 지원 경향

2026 대입 수능에서는 전년 대비 언어와 매체 응시 비율은 4.9% 감소했고, 미적분/기하 응시 비율은 10.5%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탐구 응시인원은 증가하였고, 과학탐구 응시 비율은 16.1% 감소하였다. 특히, 사회탐구 1과목과 과학탐구 1과목을 응시한 비율은 6.4%나 증가하였다. 2026 수능은 전반적으로 어려웠으며, 특히 국어와 영어의 난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수능 등급 컷과 학교 내 모의평가 등급이 크게 달라 학생들의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

국어와 수학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를 살펴보면 전년도(국어 139점, 수학 140점)에는 수학이 1점 높았지만, 2026 대입(국어 147점, 수학 139점)에서는 국어가 8점 높았다. 2025 대입에 비해 국어의 영향력이 커져 지원 시 이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했다. 수학의 경우 만점자와 2등급 컷 표준점수의 차이가 2025학년도 17점에 비해 20점으로 높아지면서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6 대입 1등급 비율은 3.1%, 2등급 비율은 14.4%,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도 43.8%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고 이로 인해 수시 지원자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영어 성적의 영향력이 정시 지원을 고려하는 데 있어 전년도에 비해 확대되었다. 사탐런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고, 과탐II의 표준점수가 과탐I에 비해 높지 않았다.

2026 수능의 결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자기 점수에 자신감을 잃고 하향·안정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4개 영역을 모두 잘 본 학생이 적어 대학 지원의 어려움이 증대하면서 오히려 3개 이하 영역 반영 대학의 입결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시모집에서 대학은 수능 성적표의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모집 단위별 대학 환산점을 산출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점을 근거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찾으며, 경쟁 상대들의 심리까지도 파악한 정시 지원이 매우 필요한 한 해였다.

이처럼 2026학년도 대입 결과는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학생 개인의 전략적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점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자기 분석과 본인만의 성장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진로 개발과 학업에 몰입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듯 하다. 대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잘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2027학년도를 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수능 D-50, 컨디션과 생활습관 어떻게 관리할까?

인천해송고등학교 교사 박종학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2026년 11월 19일(목)에 실시되므로 수능 50일 전은 9월 30일(수)입니다. 수능 D-50, 고3 교실은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수시 지원 후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정시 지원을 목표로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논술고사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함께하는 교실에서 자칫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자신의 학습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기에 어느때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생활습관으로 학습 전략을 세우고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1. 약점 보완과 자신감 회복하기

수능 D-50에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수험생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초조함,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좌절감,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로 인한 불안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수능 영역 중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시간 계획은 어떻게 세울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 달 또는 일주일 단위의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시간 단위로 나누어 짧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계획한 일을 하나씩 완성하다 보면 작은 성취감이 쌓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선택과 집중하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하는 학습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능 영역별로 자주 틀리는 유형과 과목을 분석하고, 강점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교재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교재와 기출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BSi의 모의고사 풀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풀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적을 분석과 오답율TOP15를 확인하고 연관문제를 풀어볼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틀린 문항을 확인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의 유형의 원인을 분석해서 공부한다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학습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현재 성적을 바탕으로 충족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목표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과목에 학습 시간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학습 루틴 관리와 생체리듬 관리하기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두통이나 복통을 경험하거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능 당일의 시간표를 고려한 학습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학교 일정 때문에 수능 시간표와 완전히 동일하게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집중력이 필요한 학습을 수능 시간대에 맞춰 배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영어와 탐구영역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간표를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교생활 속에서 일정한 학습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공부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고 다음 날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긍정적인 생각과 체력 관리하기

수능 D-50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감의 경험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틀린 문제는 수능 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틀린 문제 하나가 나의 약점을 찾고 다시 공부해서 한 등급을 올릴 수도 있기에 그 문제는 수능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나의 학습량을 비교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늘 하루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방심은 금물,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

불안감도 문제지만 지나친 안도감과 막연한 기대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시험의 난도와 출제 유형, 자신의 당일 컨디션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마지막까지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5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오늘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D-50, 불안해하지도 말고 방심도 금물입니다.

합격생

김아인 |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26학번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26학번 김아인입니다.

생물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꾸준하게 과학에 흥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에 입학 후 다양한 과목을 배우며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생태계 수준부터 분자 수준까지 연구하는 생물학 분야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를 지닌 미생물에 관한 기사를 보며 미생물에게 큰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으며, 생물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생물의 가능성을 펼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생물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전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모든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모든 과목의 수업을 집중하여 들으며 풍부한 지식을 쌓고자 노력했고,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저만의 공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나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직접 느낀 의문을 단순히 넘기지 않고 그 답을 찾는 과정까지 확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면접을 대비하기위해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저와 비슷한 계열의 진로를 가진 친구들과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한 경험입니다. 해당 수업은 상추에서 자라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세척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활동 과정에서 직접 기사를 통해 상추 속 세균이 많다는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해결법을 찾기 위해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였으며, 예상과 다른 답이 나와 추가로 심화 탐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균의 대사과정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실제 면접에서 제가 한 활동들을 설명드릴 때 특히 이 활동을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부족했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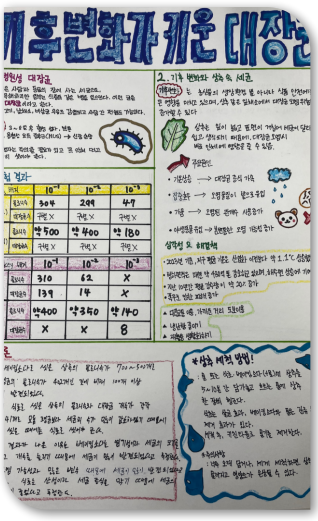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면접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제 생애 첫 대학교 면접이다 보니 많이 떨리고,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진행해주신 모의면접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며 면접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과목 대비 수학 과목의 성적이 낮다는 점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수학 과목의 개념을 생명과학 개념과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야간자율학습 시간 중 수학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여 3학년 때 수학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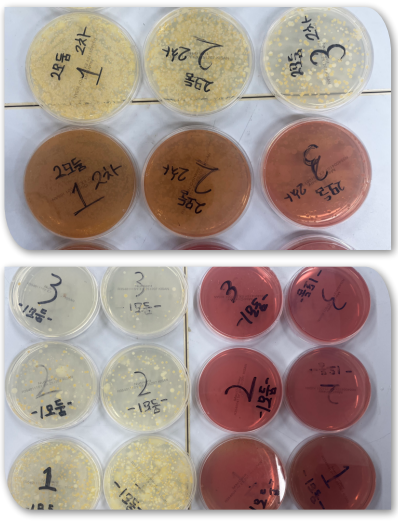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모든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 하여 참여하고자 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생물에 관한 여러 활동을 통해 진로적인 역량을,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을 통해 리더십 관련 역량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는 길이 많이 불안하고, 답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은 모두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에 바빠 필요 없어 보여도, 그 수업을 통해 쌓은 지식은 결국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지도교사

박상철 경기 군포중앙고등학교 교사

김아인 학생이 생물학과(네오르네상스전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학생은 전 교과 내신 평균 1.8x로 매우 우수하며, 특히 3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상승하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생명과학I·II, 화학I·II, 지구과학I, 생명과학실험,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등 생물학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폭넓게 이수하며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장균 배양, 항균성 실험, 효소 반응 속도 분석, DNA 추출 및 전기영동 등 실험을 스스로 설계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두드러졌고, 미카엘리스-멘텐 방정식이나 SIR 모델과 같은 수학적 도구를 생명현상 해석에 적용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3년간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꾸준히 성취를 이뤄낸 점도 매우 기특했습니다.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과 동아리 부회장을 역임하며 리더십과 협업 능력을 함께 보여주었고, 진로 또한 바이오메디컬공학에서 생명과학 연구원으로 구체화되며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학업 역량과 탐구심, 진로에 대한 확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생물학과 네오르네상스전형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도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지도방향이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지도 과정에서는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탐구를 확장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생명과학 수업 중 배운 개념을 독서, 실험, 타 교과와 연계해 심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특히 수학·화학·생명과학을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를 계속 자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시간에 다룬 개념을 생명과학의 세포 성장이나 혈류 속도, 정규분포 문제와 연결하도록 유도해 전공 적합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오픈랩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제 실험을 설계·수행하며 실패와 수정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탐구의 진정성을 갖추도록 지도했습니다. 리더십 활동에서는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하며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3학년에는 진로를 생명과학 연구원으로 구체화하며 장내미생물, 식이섬유 등 세부 관심 주제를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독서와 탐구 주제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는 단편적 활동 나열이 아니라 학생의 탐구 과정과 성장이 유기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데 가장 신경 썼습니다. 수학, 화학, 생명과학 등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진 탐구가 하나의 진로 방향으로 수렴되도록 세특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작성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학생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 탐구의 한계와 추가 연구 방향까지 언급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리더십과 인성 영역에서는 부회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조율 능력과 책임감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진로활동에서는 희망 분야가 바이오메디컬공학에서 생명과학 연구원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과장된 표현보다 학생이 실제로 수행한 활동에 기반한 사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되도록 유의했습니다.

지도교사의 시선에서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도교사로서 판단하기에 가장 큰 합격 요인은 생명과학 전 영역에 걸친 일관되고 심화된 탐구 역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균 배양 실험, 그람 염색, 전기영동, 분광광도법 등 다양한 실험을 스스로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이 세특 곳곳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었던 점이 큰 강점이었습니다. 또한 수학·화학 개념을 생명현상 해석에 적용하는 융합적 사고력이 여러 교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학업 역량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봅니다. 3학년 진로활동에서 장내미생물과 식이섬유 연구를 심화하며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전공 적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준 점도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 등 리더십 활동을 통해 드러난 협업 능력과 책임감 역시 서류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경희대학교 면접을 앞두고 지도교사 및 학생도 고생 많이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탐구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과 매우 성실히 준비한 점이, 2단계 면접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완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쉬운 점을 꼽자면 수학 교과의 일부 학기 석차등급(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등에서2~3등급)이 국어·과학 교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물학 전공 특성상 수학적 모델링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조금 더 끌어올렸다면 서류 평가에서 더욱 강점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험 탐구가 주로 생명과학 교과 내에서 이루어져, 생물학 인접 분야인 화학이나 물리 실험으로 탐구 폭을 좀 더 확장했다면 전공 이해의 깊이를 더 폭넓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물학과(네오르네상스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생물학과 네오르네상스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는 우선 생명과학 교과뿐 아니라 화학, 수학 등 인접 교과에서도 전공과 연계된 탐구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 활동에서는 결과만 정리하기보다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오차 분석, 한계와 추가 연구 방향까지 스스로 고민하게 함으로써 탐구자로서의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진로 희망은 초반부터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점차 구체화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오르네상스전형은 학업 역량 못지않게 인성과 리더십, 공동체 기여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서의 역할 수행의 의미 있는 경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에서는 생기부에 기록된 탐구 내용을 스스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평소 실험이나 탐구 결과를 말로 설명해보는 연습을 병행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

임선영 |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Q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 수학(修學)에 필요한 기초 형성과 진로 탐색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연/공학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이 곧 학업역량이자 진로역량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교과전형에서도 단순한 성적만이 아니라 서류평가를 통해 해당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를 고려해 경희대학교는 계열별 특성에 맞춰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제시합니다. 결국 과목 선택은 학생의 기초 학업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학업역량 평가에서는 과학 핵심과목으로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화학I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진로 희망에 대한 구체성이 생물학과를 선택하는 목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물학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개인 활동이나 교내 동아리 활동에서 생물학 분야의 주제를 정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하였는지, 선정한 주제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과 실험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생명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생물학 및 과학 분야의 독서를 충분히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Q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연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7학년도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의 학업에 대한 태도, 탐구력, 진로탐색에 대한 활동과 경험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전형) 서류평가 평가항목 반영비율을 평가항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 하였습니다.
한편, 학생부 출결상황에서 미인정 결석 외에도 지각·조퇴·결과 2회당 결석 1일로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출결)의 중요성, 즉 성실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되었습니다.

Q 해당 연도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전형)의 지원자 및 등록자 현황을 살펴보면, 졸업예정자와 졸업자의 비율은 지원자 기준 7 대 3, 등록자 기준 8 대 2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예정자의 지원 비중뿐 아니라 합격 및 등록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지원자와 등록자의 비율이 5 대 5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등록자의 고교 유형별 비율은 일반고·자율형공립고가 75.5%로 가장 높았고, 외국어고·국제고가 16.3%, 자율형사립고가 3.4% 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네오르네상스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과 합격이 높은 전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적은 일반고 기준으로 합격자 내신이 2.0등급으로 비슷해도, 지원 학과 관련 기초과목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활동으로 확장하거나 심화한 경험,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주로 합격하였습니다.

Q 서류 평가 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평가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해석할 때 등급이라는 단일 지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학업역량에서는 소속 고교의 재학생 수 등 교육환경을 토대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되 기초, 탐구, 교양 과목 모두 소홀한 과목 없이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지를 살펴봅니다. 학년별로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이수 양상, 진로선택과목의 비중과 특성 등을 함께 확인하며 특히 진로선택과목 이수가 많은 경우, 이는 진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반영한 선택인지, 혹은 등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고등학교 과목 편성은 학년이 오를수록 진로선택과목이 많아지기에 지원자의 성적 추이를 평가할 때 더욱 신중합니다. 교과에서 학습한 개념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고 확장해 나가는 학습 경험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진로역량 평가에서는 지원자가 대학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선택하여 이수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이수한 해당 교과 성취도는 우수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Q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생물학과 김아인 학생은 생물학과의 핵심 이수 과목인 수학Ⅰ·Ⅱ, 화학Ⅰ, 생명과학Ⅰ·Ⅱ를 비롯해 권장 과목인 미적분, 확률과 통계, 화학Ⅱ를 모두 이수했습니다. 또한 생명과학실험과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을 추가로 이수하는 등 일반고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수학·과학 교과를 충실히 학습한 자연계열 지원자입니다. 타 교과에 비해 수학 교과의 원점수와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모집단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큰 생명과학 교과에서는 우수한 성취를 보였습니다. 특히 생명과학·유전·장내 미생물 분야에 대한 관심이 뚜렷했으며, 동아리와 진로활동을 통해 장내 미생물, DNA 추출, 식이섬유, 혈당 조절 등 하나의 관심 주제를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확장해 나간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전교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하고, 학습 멘토링 활동과 과학탐구실험 동아리 부회장으로 참여하며 리더십과 협업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의 교내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했으며, 3년 개근을 통해 책임감과 꾸준한 자기관리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김아인 학생은 전공 관련 학업 역량과 탐구력은 물론,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균형 있게 갖춘 전인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배움의 지평을 넓혀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과학도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합격생

이○○ |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공계열(무학과) 26학번
일반(학생부종합)전형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기술원 이공계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울산과학기술원 미래인재학부 26학번으로 입학한 이○○입니다.
미래인재학부는 단순히 정해진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러 학문을 연결하여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창조해 나가는 학생들이 모인 학부로 다양한 전공 가능성을 탐색하며 스스로의 적성과 학업 방향을 설계하는 1학년 무전공 과정입니다.

미래인재학부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진학 당시에는 막연히 자연계열 분야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업을 거듭하며 수학과 과학 과목에 흥미를 느꼈고 성적도 향상되었지만, 특정 학과 하나로 진로를 단정 짓기에는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학문을 폭넓게 접하며 스스로 융합적 길을 설계할 수 있는 울산과학기술원의 미래인재학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고 여러 학문을 배우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전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일반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어느 한 과목도 포기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신을 균형 있게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1학년 때에 비해 2학년 때 성적을 많이 올렸고 그중에서도 수학과 과학 과목 내신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면서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을 함께 키우고자 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3학년 자율활동에서 학우들과 수업시간에 배운 반도체 소자를 직접 활용하여 라디오를 제작했던 경험입니다. 라디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동이 되지 않자 회로를 재점검하며 오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각 소자들의 역할 관계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작과정에서의 미세한 실수가 회로의 전체 작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하고 검증하는 실습 과정은 문제 해결 중심의 실험과 실증을 중시하는 과학기술원의 가치관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부족했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1, 2학년 때는 진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방향성이 다소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3학년 때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활동과 실습 경험을 채워 넣으면서 점차 저만의 생기부를 만들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만의 학업 계획을 세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간 점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분위기나 남들에 의해 흔들리기 쉬운데 저는 저에게 맞는 계획을 고수하며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며 성적을 올리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때는 당장 목표나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 불안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방향이 확실했던 건 아니었지만 주변 분위기나 남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제 방식대로 하나씩 채워가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 스스로를 믿고 자기 속도에 맞춰 차근차근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교사

최재원 | 전북 덕암고등학교 교사

이○○학생이 울산과학기술원 이공계열 일반전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특별한 역량과 누구보다 뛰어난 성실한 학업 태도와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도교육청 창의인재 과학아카데미나 학생과학 아카데미를 스스로 신청하고 이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교내 활동인 테마별 돋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물리에 관심이 있는 주변 친구들과 함께 반도체 소자를 직접 활용하여 라디오를 제작하는 등 창의적 탐구 역량과 호기심이 많은 학생의 모습과 학습 자세가 울산과학기술원 이공계열 일반전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지도방향이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학생이 평소 가지고 있던 호기심에 대해 스스로 방관하거나 미루지 않고,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이나 교육청 프로그램, 과학 아카데미, 그리고 학내에서 같은 생각이나 의문을 가진 학생들끼리 소모임이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었습니다. 또한 과학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학생주도 과학동아리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실험 프로젝트에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호기심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려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먼저 학생이 가진 의문 및 호기심에 질문 내용과 그 질문의 이유나 동기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자기평가서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동기나 질문의 이유 및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 뒤 실험의 과정이나 순서 또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보여주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에 본인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한 표현 또한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동기-과정-결과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의 결과와 효과는 면접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교사의 시선에서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학생은 궁금증과 질문의 의도가 분명하였고, 본인의 활동에 대한 이유나 동기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를 나타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가진 궁금증과 질문의 이유나 동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명료하고 객관적이다 보니, 학생 스스로 무엇을 보고 배우게 느끼게 되었는지 표현하는 것도 또한 자세하고 치밀하게 표현하여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학생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교외 활동과 테마별 돋보기 프로젝트 및 과학 오픈 랩과 같은 교내 활동이 유기적인 활동성을 갖추고, 본인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고 싶은 것에 대한 호기심과 그에 대한 실험 및 탐구가 명료하게 드러났고,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여러 선생님들이 세밀한 관찰을 통해 융합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완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전체를 돌이켜 볼 때 누구보다 우수한 학업역량 및 성실한 생활 자세와 흠 잡을 때 없는 탐구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학생이 스스로 풍부한 실험 기회나 기자재, 호기심과 질문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및 장소가 열악하여 좀 더 많은 탐구 결과를 보여주지 못 한 것이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학생이 스스로 보여준 학업 역량과 탐구력은 정말 대단한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과 인내의 결과로 좋은 성과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열 일반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누구보다 강한 탐구력과 호기심,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탐구력과 호기심, 도전 정신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조성해야 할 여건은 물질적이거나 환경적인 여건의 조성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자신감을 불러주고, 자신이 가진 호기심에 대해 도전하고 탐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정신적 여건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많은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진 꿈이 단순히 생각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 학생의 모습, 그 자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김서린 |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입학사정관

Q UNIST 수시모집(일반전형 등)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UNIST는 모든 수시모집은 모든 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특히 학업역량 못지않게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을 비중 있게 평가합니다. 즉, 이공계열 진학을 향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 학생인지, 본인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지속해 왔는지, 그리고 입학 후 어떠한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Q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연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6학년도는 전년도(2025학년도)와 비교해 일반전형 이공계열 무학과 모집인원이 270명에서 250명으로 감소한 반면, 탐구우수전형 모집인원은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7학년도는 2026학년도 대비 전체 모집인원이 총 100명 증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전형 이공계열 무학과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70명 증원되었으며, 탐구우수전형에서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설 전형인 '그릿인재전형'을 통해 10명을 새롭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릿인재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GRIT인재융합학부'로 소속되어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Q 해당 연도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기본적으로 UNIST에는 이공계 분야 전반에 걸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품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 역시 수학과 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수한 학업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과학 과목을 진심으로 즐기며 관련 교과목들을 다수 이수함은 물론, 기본 학업역량 또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나아가 본인이 관심 있는 이공계열 분야와 연계해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으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도적인 탐구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이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Q 서류 평가 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서류 평가 시에는 수·과학 과목의 이수 정도와 이에 따른 학업적 성취도, 그리고 탐구역량을 살펴봅니다. 우선 수학과 과학 교과를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 나아가 진로선택과목까지 적극적으로 선택해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을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동시에 본인의 관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파고드는 탐구역량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검토합니다. 이에 더해 UNIST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과 진학 의지, 그리고 입학 후 어떠한 학업 및 진로 계획을 가지고 본인만의 탐구를 이어갈 학생인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Q UNIST가 원하는 인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UNIST가 기대하는 인재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평가 기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우선 수학과 과학 교과를 충실히 이수하고 우수한 성취를 거둠으로써,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되는 기본 학업역량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관심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태도를 보여주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폭넓게 연결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UNIST에 대한 확실한 진학 의지와 입학 후의 구체적인 학업 및 진로 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공계를 이끌어갈 성장 잠재력을 서류에 진정성 있게 담아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UNIST는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 탐험하며, 인류의 삶에 공헌할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교 생활 동안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도전해 본 경험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꿔온 이공계의 비전을 UNIST에서 마음껏 펼치고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